

T V

TV 8일

★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

Table with 6 columns: 채널A, KBS1, KBS2, MBC, KBC/SBS, EBS. Rows 6-12 showing program schedules for June 8th.

TV 9일

Table with 6 columns: 채널A, KBS1, KBS2, MBC, KBC/SBS, EBS. Rows 6-12 showing program schedules for June 9th.

TV 10일

Table with 6 columns: 채널A, KBS1, KBS2, MBC, KBC/SBS, EBS. Rows 6-12 showing program schedules for June 10th.

2PM 네번째 싱글 오리콘 일간차트 2위

'뷰티풀' CM송으로 선 공개- '아라나 투어 라이브'는 DVD 음악부문 1위

그들 2PM이 6일 선보인 네 번째 싱글 '뷰티풀(Beautiful)'이 발매 첫날 7만3천529장이 팔려 오리콘 싱글부문 일간차트 2위를 차지했다.
지난해 10만 관객을 동원한 2PM 첫 아라나투어 라이브 DVD '아라나 투어 2011-리퍼블릭 오브 2PM'도 이날 동시에 발매돼 첫날 DVD 음악부문 일간차트 1위에 오르고, DVD 종합부문에서도 2위의 성적을 거뒀다.

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

6월 8일(음 4월 19일 庚子)

- 36년생 불만족스럽겠지만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. 48년생 마음가짐을 잘 조절해야 한다. 60년생 성공을 확신해도 된다. 72년생 기능과 역할이 중요한 때이다. 84년생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될 수다. 행운의 숫자 : 26, 68
37년생 미리서부터 한계를 정하고 행하는 것이 좋다. 49년생 기억해내지 못해서 안타깝겠다. 61년생 추측에 그치면 실수가 따른다. 73년생 집착하지 않았을 때 더 낫다. 85년생 예외가 있음을 알지라. 행운의 숫자 : 90, 85
38년생 목표한 수치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하게 될 수다. 50년생 되지도 않을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라. 62년생 불미스러운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. 74년생 따지지 말고 수용하도록 하자. 행운의 숫자 : 74, 30
39년생 관계를 풀고 싶은 심정이겠다. 51년생 현상을 잘 분석해 보면 방안이 생길 것이다. 63년생 방법과 기교를 바꿨을 때 훨씬 더 진전되리라. 75년생 적극적인 마음으로 기계를 팔릴 때가 오고 있다. 행운의 숫자 : 23, 97
40년생 전체적인 어울림과 통일성이 절실한 때이다. 52년생 필요하다면 괜한 자존심은 버리고 도움을 청하라. 64년생 세심한 배려를 해야겠다. 76년생 바로고 아름답게 언행 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. 행운의 숫자 : 52, 62
41년생 애지중지하는 이들의 방문이 잇따른다. 53년생 상대의 성질을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다. 65년생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임해야 하느니라. 77년생 자신의 견해를 확실히 표명하는 것이 좋다. 행운의 숫자 : 80, 17

- 42년생 활동과 휴식 간에 절도가 있어야겠다. 54년생 전체를 포괄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. 66년생 정도가 지나쳐서 몹시 싫증이 날 수 있다. 78년생 단순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아니 되리라. 행운의 숫자 : 13, 24
43년생 좋은 것들로만 잘 쟁겨 보아라. 55년생 상대가 거절할 수 있음을 감안하고 응하라. 67년생 행로에 모래가 날리고 돌맹이가 구르는 격이로다. 79년생 가까운 이웃에게 물어보면 현히 알 수 있다. 행운의 숫자 : 96, 57
44년생 동글동글하게 살아가려는 태도를 견지하자. 56년생 둘러보고 용무를 보도록 하자. 68년생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니 어림잡아서 해도 된다. 80년생 한꺼번에 해결할 수도 있는 기회다. 행운의 숫자 : 91, 03
45년생 세련된 기교와 고차원의 방법이 필요. 57년생 미래를 내다보고 배려하면 좋겠다. 69년생 화법 구사에 있어서 억양과 고저의 조절이 꼭 있어야겠다. 81년생 기한을 지나가면 아니 되니 꼭 지키자. 행운의 숫자 : 12, 04
46년생 정도가 넘치거나 처저서는 어느 쪽에도 맞지 않다. 58년생 생긴 모습대로 행하리라. 70년생 무리하게 해내면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. 82년생 자주 만나서 친숙해지는 것이 우선이리라. 행운의 숫자 : 94, 45
47년생 꼭 얼굴을 내밀어야 하느니라. 59년생 절제해서 입을 굳게 다물고 참아야만 한다. 71년생 부드러운 권유를 하되 내용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. 83년생 풀어주고 잡아당기기를 잘해야겠다. 행운의 숫자 : 36, 01

"전화상담도 받습니다. 광주일보 독자전화" ☎010-9790-8237